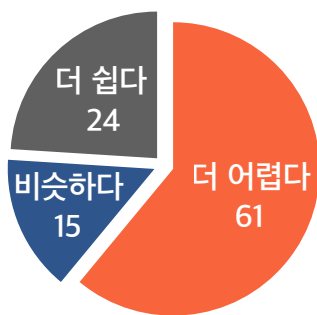


# 2

##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것,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‘더 어렵다’, 61%

- 배우자 등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과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비교하면 어떻게. 이에 대해 질문한 결과, ‘더 어렵다’ 61%, 쉽다 24%로 어렵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남. 이는 배우자나 가족을 변화시키려다 갈등을 겪은 경험적 인식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

[그림] 배우자(가족)을 변화시키는 것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과 비교해 어떤가 (%)



“우리는 자신이 힘겨워하는 일을 척척 해내는 사람에게 끌린다. 결혼하면 그 장점이 실망스러운 것으로 바뀐다. 이를테면 가사 능력은 정리 정돈 강박증처럼 보일 수 있다. 서로의 차이에 끌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. 최적 배우자는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견 충돌과 차이를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다” (알랭 드 보통)

\*5점 척도로 질문한 것으로 '더 어렵다'는 매우 어렵다+어려운 편이다를 합산한 비율임  
 또한 '더 쉽다'는 매우 쉽다+쉬운 편이다를 합산한 비율임  
 \*\* 자료 출처 : 조선일보, '20년 전과 성격 달라졌다, 53%... 남이 보는 나는 그대로일 수도', 2019.01.04.  
 (전국 30-60대 남녀, 4,029명, 온라인조사, 2019년 12월)

### ● 우리 국민 2명 중 1명 '20년 전에 비해 '내 성격 변했다'

- '사람은 안 변한다!' 라는 말이 있는데, 우리 국민은 실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까. 이에 대해 20년 전과 비교해 지금 성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묻은 결과, 성격이 '달라졌다'는 응답은 53%로 국민 절반 이상이 20년 전에 비해 지금이 성격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
- 문화적 취향(음악과 영화)과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도 '달라졌다'는 응답이 각각 54%, 51%로 절반 이상이 바뀌었다고 응답함

[그림] 20년 전에 비해 '나의 \_\_\_\_이 달라졌다' (긍정 비율\*) (%)



\*5점 척도로 질문한 것으로 '달라졌다'는 '완전히 달라졌다+달라진 편이다' 합산 비율임  
 \*\* 자료 출처 : 조선일보, '20년 전과 성격 달라졌다, 53%... 남이 보는 나는 그대로일 수도', 2019.01.04.  
 (전국 30-60대 남녀, 4,029명, 온라인조사, 2019년 12월),  
<https://news.v.daum.net/v/20200104030237791>